

'전주문화재야행' 공연·체험 '다채'

전주시, 18~19일 경기전·전라감영 일대서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개최

은은한 달빛 아래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전통 공연을 보고 여러 체험도 할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전주문화재야행'이 진행된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 추진단은 오는 18일과 19일 전주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대에서 '문화재야행의 팔(八) 야심작'을 슬로건으로 '2021 전주문화재야행(夜行)'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모든 콘텐츠가 비대면으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100여 개의 영상 콘텐츠와 사전예약을 통한 현장 운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주문화재야행은 ▲빛의 술사들 ▲문화재 술사들 ▲이야기 술사들 ▲그림 술사들 ▲공연 술사들 ▲음식 술사들 ▲여행 술사들 ▲홍정 술사들 등 8개 섹션, 27개의 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5개 구역에서 펼쳐진다.

먼저 1구역인 '이야기 구역'에서는 ▲왕과의 산책 ▲경기전 사립들 ▲지역예술가무대 등이 진행된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의 경기전을 거닐며, 조선의 왕을 만나 여담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 추진단은 오는 18일과 19일 전주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대에서 '문화재야행의 팔(八) 야심작'을 슬로건으로 '2021 전주문화재야행(夜行)'을 운영한다.

을 나누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2구역인 '준비실록'에서는 조선의 실록을 지키는 전주야행 K-준비를 피해 미션을 완수하고 실록을 완성하는 역사·체험형 프로그램인 '경기전 준비실록'에 참여할 수 있다.

3구역 '치유의 경기전'의 경우 ▲치유의 경기전(향기·소리·차) ▲지역예술가무대 ▲경기전 트리아트 ▲왕과의 산책 ▲어진박물관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선산한 저녁 바람,

나무숲을 타고 흐르는 국악공연을 들으며, 다채로운 빛으로 수놓은 경기전을 느낄 수 있다.

4구역 '문화재 놀이터'에서는 ▲이야기 버스킹 '달화' 시즌2 ▲거리의 화공 ▲전주야행 문화재놀이터 ▲사진으로 만나는 문화재의 밤 ▲지역 예술가무대 ▲태조와 야행을 만나다 등으로 꾸며졌으며, 인원 제한 하에 현장 예약으로 운영된다. 한지 등 만들기, 조선왕 종이접기, 컬러링 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5구역인 '전라감영'에서는 ▲전라감영이 돌아왔다(역사해설투어)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전통 놀이술사 1대1 게임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밤의 '계' 이득-전주맛집 족보 개발 ▲슬기로운 집콕 생활(방구석 음식대접, N행시 짓기) ▲카카오북 방탈출 대국민 OX퀴즈 등 전주문화재야행 온라인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전예약은 오는 16일까지 전주문화재야행 홈페이지(jonjunight.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공작소(063-232-993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문화재야행은 6월에 이어 오는 9월 24일과 25일에도 2회차 야행이 진행된다. 전주문화재야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전 예약에 한해 밤 11시까지 경기전 야간 입장이 가능하다. 또 한옥마을역사관, 최명희문학관, 부채문화관, 술박물관, 완판본문화관 등 5곳은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4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꼭 가 봐야 할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공동체-공공기관 상생 페스티벌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6개 공공기관 정책·채용정보 등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동체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공동체 활동과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할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9일 전주 시청 강당에서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공동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공동체-공공기관) 상생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처음 열린 공-공 상생 페스티벌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지역 공동체 활동과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할 목적으로 오는 10일과 16일, 두 차례 더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체 회원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알아보기'를 주제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채용동향, 인사정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공기관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고, 공동체의 사회참여를 확산시킬 '전북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의 공헌 사업들을 소개된다. 16일에는 6개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각 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 팀이나 신규 직원의 입사 경험사례 등을 듣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3일간의 페스티벌 성과를 종합 분석해 추후 공동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백신 접종 돕는다

이동 안내·예진표 작성 등 지원

전주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박정석)은 오는 15일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유아동 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돕는다고 9일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발생으로 대규모 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는 자원봉사활동 기구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운영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는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뷰티플러스봉사단,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원불교봉공회 전북지부, 전주시덕진외용소방대, 전주시새마을회,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행복드림봉사단 등 전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봉사단체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덕진예방접종센터에 1일 50명씩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 ▲이동 안내 및 질서유지 ▲접수 안내 및 예진표 작성 ▲이동약자 밀착 동행 ▲동반아동 보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덕진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박정석 단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원봉사단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공모를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83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단 시설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과 공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공단 운영사업 관련 주요 정책,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수익 창출 아이디어 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공단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 또는 작은 예산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행사성 사업,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규모는 총 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5,000만원이 넘을 경우 필요 시 전주시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주에서 근무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phy1001@js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본부(경영지원부) 또는 각 이용시설을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백순기 이사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추진한다"며 "제안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수 창업 소기업' 확대 지원

전주시, 23일까지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신장 2~7년차 기업 모집

전주시가 창업 후 매출이 는 기업에 우수 창업기업으로 인증해 홍보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창업한 지 2~7년이 된 기업 중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신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 전주시 우수 창업 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격려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돕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는 총 20개사 내외의 기업을 우수 창업 소기업으로 선정해 표창 및 격려패를 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3.5%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품박람회와 구매상담회를 통한 제품 홍보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19·20년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육성 추진위원회의 성장평가, 기술품질 평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우수 창업 소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정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창업 소기업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원동력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 교육아카데미, 홍보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